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초급 단계 연어를 중심으로-

유문명*

Liu, Wen-Ming. A Study on the Response Patterns of Chinese language to Korean Collo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the Chinese language to the Korean Collocation, and contras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oun+verb" type collocations term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is study are organized as follows: In chapter one, the previous studies, the motivation an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and the scope and method were discussed. In chapter two, firstly, the concep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llocation were examined and then the definition and the standard of classification of collocation were presented. In chapter three, the theories to compare Korean collocation with Chinese were presented. In chapter four, the author compared the collocations expressed in Korean and Chinese in two direction of view. In the syntactic correspondence view, contrast and analysis the grammatical relations and grammatical configuration between the two language. On the second part of chapter four is in the semantic correspondence view, and both the basic and the figurative meaning are considered. At last, it concludes and summarizes the whole study. In chapter fiv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learn vocabularies by collocation terms which Chinese native students can practically improve their expression skills more naturally and fluently. Hope the study will trigger series of researches about collocations expressions.

Keywords: Korean Collocation, Correspondence Type, Syntactic Correspondence, Semantic Correspondence, Contrastive Study

*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1. 들어가며

한국어 연어에 대한 연구는 1990 년대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를 통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 및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 오류 연구는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연어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나타내며, 또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어 연구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는 중국어 학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중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 역시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¹⁾.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로 대치 오류를 꼽을 수 있으며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²⁾.

(1) ㄱ	*지난주에 저는 감기를(√감기에) 걸렸어요.	(CHL L2)
ㄴ	*친구들과 신인 같이 술을 마시고, 게임을 놀아야(√해야) 해요.	(CHL L2)

(1 ㄱ)에서는 통사적인 오류가 보인다. 학습자는 "감기에 걸리나"를 표현할 때 중국어 목술관계 연어인 "得感冒[얻다-감기]"에서 축반하여, 중국어의 목술관계를 한국어 조사 '를'로 표현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 ㄴ)에서 어휘 대치 오류가 보였으며, 학습자가 "게임을 하다"를 표현할 때 중국어 연어 "玩游戏[놀다-게임]"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이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언어적 차이가 종종 오류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연어목록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급 단계 '체언+용언' 구조의 연어와 중국어 대역 표현과의 대응 양상을 통사적, 의미적으로 대조하여 그 대응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¹⁾ 김미옥(2003:12)에 의하면 어휘 오류율에 있어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류 유형별로는 어휘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²⁾ 오류의 예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 말뭉치 1』에서 추출하였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학습자 말뭉치는 2010 년 봄학기부터 2010 년 여름학기까지의 한국어학당 학습자의 작문을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의정 • 현송화(2011)을 참조하길 바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연어의 개념

Forth는 “단어의 의미는 그것과 같이 나타나는 단어들에 의해 파악된다”고 역설하면서 연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연구에 도입했다³. 그 후 어휘론이나 사전학, 의미론 등 많은 영역에서 연어의 정의, 범위, 유형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최현배(1929)는 연어를 '이은말'이라고 칭하며, 연어의 정의를 처음으로 내렸다. 1990 년대에 들어서서 자유결합 및 관용어, 연어 간의 차이를 통해 연어의 개념을 밝히는 국어학 연구가 많았다. 김진해(1999)는 연어를 관용적 표현과 구분하여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관용어는 두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제 3 의 의미를 형성하는 반면 연어 관계에 있는 두 요소는 그 중 한 요소가 다른 한 요소를 선택한다. 임근석(2006)은 연어를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로 나누어, 어휘적 연어를 어휘요소 상호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요소를 제약적으로 선택하는 구성으로 정의를 내렸다. 국어학 연구가 언어 구성성분 간의 결합제약과 공기빈도를 중요시한다면 한국어교육학 연구는 응용언어학 연구로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언어 교수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한송화·강현화(2004)는 한국어교육학 입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결합 혹은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많은 어휘들의 결합”이라고 연어를 규정하였으며 “모어 화자가 특별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해 내거나 스스로 텍스트에서 유용한 연어라고 선택한 것들”을 연어로 본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구로서 연어 정의의 규정보다 연어 목록 제시, 사용 방법 및 모국어와의 대조분석 결과가 더 유의미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연어 의미의 전이성이나 제약성 등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한송화·강현화(2004)에서 규정한 연어의 정의를 따르며, 한국어 학습자 입장에서 이해와 표현에 도움이 되는 단어들의 결합을 모두 연어로 보고자 한다. 연어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어 유형 및 연어의 분류 기준도 다양하다. 본 연구는 문금현(2002)의 통사적인 분류 기준에 참고하여 주술관계, 목적관계, 수식관계로 연어를 분류하여 그 대응 양상을 살펴보겠다.

³ 이지혜(2006:21)를 재인용하였다.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역의 대응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한국어 연어에 상응하는 중국어 문법 단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연어와 대응이 일치한 문법 단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일치하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해진다. 한국어 연어에 해당하는 중국어 문법 단위인 '短语'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일정한 구조방식에 따라 결합하여 그 자체가 문장이 되기도 하고, 문장 내에서 어떤 성분이 되기도 한다⁴.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短语의 결합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1>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短语의 통사 대응

한국어 연어	중국어 短语
주술관계 연어	主谓短语(주서술어구)
목적관계 연어	动宾短语(술빈구)

<표 1>에서 제시하듯이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의 주서술어구와 대응이 일치하며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구성된다. 목적관계 연어는 중국어 술빈구와 대응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목적관계 연어는 '명사+동사'의 구조이며, 중국어에는 '동사+명사'의 구조가 된다. 수식관계 연어는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⁵.

2.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출발한 연어 연구 134 편을 추출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연어 교육 내용 선정 및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 연어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 연어 교재 개발 및 사전 편찬에 관한 연구, 연어 대조에 관한 연구 등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입장에서 출발한 연구로서 연어 대조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강현화(2005)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2004)』에 제시된 '체언-용언'형 연어 총 821 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국어와 대조분석한 후, '동일한 표현', '유사한 표현', '상이한 표현'

⁴ 중국어 短语의 개념은 北京大學中文系(2007:299)와 范曉(2007:16)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⁵ 수식관계 연어는 체언에 '(으)로', '에', '에게' 등 조사를 붙여서 구성한다. 이러한 조사는 중국어와 대응할 때 중국어 허사(虛詞)와 대응될 수도 있고, 중국어 어휘와 대응될 수 있는 복잡한 대응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조사 '(으)로'는 한국어 연어 '물로 씻다'에서 중국어 '用'과 대응하고, '사료로 다치다'에서 중국어 '因为'와 대응된다. 따라서 본고는 수식관계 연어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수치화하였다. 기단봉(2010)은 목술관계 연어를, 석아남(2013)은 주술관계와 목술관계 연어를 대상으로 통사적, 의미적으로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범기혜(2010)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연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여 한국어 연어에 해당되는 중국어 대응 표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대응형과 비대응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중국어의 연어 개념과 대조하면서 한국어 연어가 중국어의 연어, 자유구성, 어휘 각각에 해당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왕효휘(2012)는 동사가 구성하는 연어를 통사 관계에 따라 분류하여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9 가지 대응 양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앞선 선행연구의 분석에서 특히 연어 대조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 연어와 대조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조를 위한 대상 연어 목록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할 것인가? 둘째, 대역표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역 작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셋째,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 대조의 방법론, 즉 대조의 틀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선정

연어의 가짓수가 많고 모든 연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2012)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 연구 성과물을 참고하여 학습자를 위한 연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이는 한국어교육학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고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은 국가 주도의 표준 한국어 어휘 교육 자료의 구축 및 확산 사업으로서 체계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말뭉치 빈도, 사전의 예문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참조해서 연어 구축 지침에 따라 최종 정비된 연어 목록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국어교육 입장의 출발점과 일치한다. 또한 연어를 단어들의 결합으로 정의한다는 점,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구를 포함하는 점, 학습자 입장에서 출발하는 점은 연어에 대한 본고의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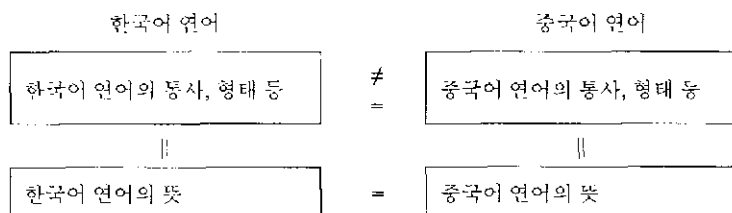
과 일치한다⁶.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은 실행연구에서 연어 추출 대상 자료로서 삼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의 연어를 모두 포함시킨 대규모 자료로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에서 제시된 연어 중에 '체언+용언' 구조의 연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⁷.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에서 총 2,158 개 표제어를 제시하여 "체언+용언" 구조 중에 주술관계 연어 1,230 개와 목술관계 연어 1,589 개, 총 2,819 개 연어를 최종 목록에 수록하였다.

3.2 연구 방법

두 언어를 대조하는 것은 서로 대응하는 부분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으로, 서로 다른 언어의 대응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대조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대응하는 요소를 전제로 대응하지 않은 요소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취하여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와 대조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도표 1>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의 대조연구 방법



위 도표에서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를 대조할 때에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역 표현의 내용이 전제로 형태가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고, 형태가 서로 다를 경우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본다. 따라서 한국어 연어의 정확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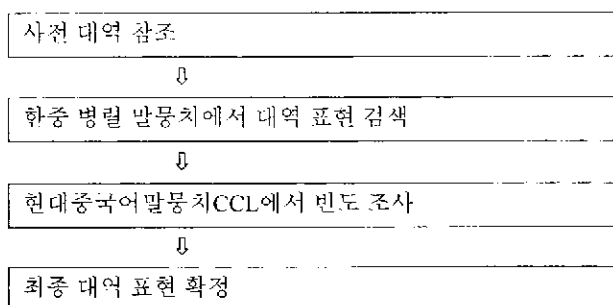
⁶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의 연어 구축 지침 및 연어 개념에 관한 내용은 한송화(2015)를 참조하였다.

⁷ 강희화(1998)에 의하면 "체언+용언"꼴의 연어는 전체 연어 구성의 많은 부분은 차지한다. 따라서 전체 연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체언+용언"꼴 연어를 대상으로 내용 유형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 대역어 연구의 전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어 대역 표현을 선정하는 작업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연구에서 중국어 대역 표현 선정 작업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번역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언어 습관과 언어 의미의 이해 차이로 인해 같은 연어를 두고 다르게 번역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고는 대역 표현 선정의 방법, 절차 및 규칙을 세워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역 표현을 선정하였다.

<도표 2>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역 표현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선 사전 번역의 객관성과 권위를 고려하여 한중·중한 사전 3 개를 선정해서 연어 구상 성분을 통해 해당 연어의 중국어 대역을 1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전 대역이 있는 경우 대역 표현으로 택하며 사전 대역이 없는 경우에 한중병렬말뭉치⁸⁾에서 해당 한국어 연어를 검색하고 대응되는 중국어 대역을 추출하였다. 한 연어에 해당하는 중국어 대역 표현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현대중국어말뭉치 CCL⁹⁾에서 중국어 대역의 사용 양상과 빈도를 참고하여 빈도가 높고 한국어 연어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대역을 택하였다. 한중 병렬말뭉치에서도 용례가 검색되지 않은 연어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⁸⁾ 연세대학교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에서 구축하고 있는 한중병렬말뭉치는 한국에 신문, 소설의 원문과 그에 해당하는 중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렬말뭉치의 규모와 균형성 등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⁹⁾ 北京大学中国语言研究中心에서 제공한 중국어 말뭉치 온라인 검색 시스템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을 참고하였다.

번역하였다. 주관번역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몇 가지 번역 원칙을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어의 언어 습관에 따라 가상 친숙한 표현을 우선으로 택하였다. 선행연구의 주관 번역 원칙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선행연구가 한국어 언어 통사구성을 되도록 유지하는 번역 원칙을 세운다¹⁰.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표현할 때 모국어의 언어 습관으로부터 출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인 화자에게 가장 친숙한 표현을 대역으로 택하고자 한다. 둘째, 대역의 일반화 원칙이다. 글의 장르에 따라 같은 언어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대역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역을 취한다¹¹. 셋째, 중국어 현대 말뭉치에서 검색된 빈도를 참조하여 출현 빈도가 높은 대역을 우선으로 택한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응 양상 분석에는 어휘적 접근과 통사적 접근이 있다. 대부분 선행연구는 어휘적 접근을 중심으로 대조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언어 구성 성분의 형태와 의미를 대조하는 방법이고, 통사적 접근은 구성성분의 결합관계 및 문장에서 해당 언어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고는 한국어 언어와 중국어 대역 표현의 통사적인 대조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통사적인 접근과 어휘적 접근을 각각 분석하며, 통사적인 대응을 우선으로 살펴보고, 대응이 일치하는 경우에 각 구성성분의 의미 대응이 일치 여부를 분석한다.

통사 대응 불일치와 의미 대응 불일치는 대응 불일치의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을 보인다. 본고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서 완전 일치, 부분 일치, 불일치 세 부류로 나눠서 보겠다.

- a. 완전 일치: 통사 대응 일치, 구성성분의 형태·의미 대응 일치
- b. 부분 일치: 통사 대응 일치, 구성성분의 형태·의미 대응 불일치
- c. 불일치: 통사 대응 불일치

¹⁰ 범기혜(2010)은 "지역 중심의 원칙"과 왕효휘(2011)의 "축차적인 지역 표현 선택"은 지역과 의역이 모두 가능할 때 되도록 한국어 언어의 형태와 통사를 그대로 유지하여 직역을 택하는 원칙이다.

¹¹ 이은정(2015:55)에서 "...[생략]할머니들을 만나다"의 대역 표현을 선정할 때 한중 신문 병렬말뭉치 검색을 통해 "与老人们见面"가 검색됐기 때문에 한국어 조사 '를'은 중국어 '与(와/과)'와 대응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한중 신문 병렬말뭉치의 검색 결과를 떠나서 "할머니들을 만나다"는 '见老人们'로 번역하는 것이 통사적인 대응도 일치하고 표현도 자연스러우며 이 경우에 한국어 조사'를'은 실제의 의미가 없고 목적관계를 나타낸다.

세 부류 안에 각각 대응이 일치하지 않은 위치, 대응이 일치하지 않은 원인에 따라 세부 분류를 다시 나누었다. 2,819 개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을 분석하여 각 세부 분류에 속한 연어의 갯수를 통계하였다. 다음 장에서 한국어 주술관계 언어와 목술관계 언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4. 한국어 연어의 대응 양상 분석

4.1 주술관계 언어의 대응 양상 분석

주술관계 언어의 대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초급 단계 주술관계 언어의 대응 양상

완전일치	기본의미 대응일치		244		618 (50.2%)
	파생의미 대응일치		374		
부분 일치	체언 불일치	관련어	7	13	222 (18.1%)
		비관련어	6	(1.1%)	
	용언 불일치	결합차이	134	209 (17.0%)	
		비관련어	22		
		관련어	53		
불일치	품사차이		6(0.5%)		390 (31.7%)
	결합 관계 차이	주술-술빈	249	267 (21.7%)	
		주술-술보	6		
		주술-상황어중심어구	12		
	언어식 대응 부재	주술-어휘	52	116 (9.4%)	
		주술-구	54		
		주술-문형	6		
		다른 표현으로 대체	4		
합계 1,230(100%)					

위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급 단계 50.2%의 주술관계 언어가 중국어 대응 표현과 통사적, 의미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통사가 일치하지만 언어 구성 성분의 의미 차이로 부분 일치에 해당하는 언어는 18.1%를 차지한다. 통사적으로 대응이 일치하지 않는 언어 중에는 한국어 언어와 중국어 대

역 표현의 결합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도 한국어 연어가 중국어 술빈구와 대응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¹². <표 3>에서 제시한 대응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a. 완전 일치

완전 일치 부류는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역 표현의 통사가 일치하고, 구성 성분의 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유형이다.

(3)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거리가 <u>가깝다</u>	距離 <u>近</u>	기본의미 대응 일치
ㄴ.	성격이 <u>조용하다</u>	性格 <u>安靜</u>	파생의미 대응 일치

예(3 ㄱ)은 한국어의 '거리가 가깝다'와 중국어의 '距離近'이 통사, 의미가 대응이 되며 '가깝다'와 '近'의 기본 의미도 대응된다. 예(3 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형용사 '조용하다'의 파생의미로 "말이나 행동, 성격 따위 수선스럽지 않고 매우 안전하다"로 제시되어 있으며 예(3 ㄴ) '조용하다'의 파생의미에 해당된다. 이 파생의미는 중국어 '安靜'의 기본의미와 대응된다. 한국어 연어의 파생의미가 중국어 대역표현의 기본의미와 대응되는 유형이다.

b. 부분 일치

부분 일치 부류는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역 표현의 통사가 일치하지만, 구성 성분의 의미는 일치하지 않은 유형이다. 구성 성분인 체언이나 용언의 형태와 의미가 다르거나 다른 어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 성분 중에서 체언이 일치하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

(4)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u>술</u> 이 늘다	<u>酒量</u> 增加	관련어-상분추가
ㄴ.	<u>목</u> 이 마르다	<u>口</u> 干	비관련어

¹²이에 대한 분석은 4.3 절에서 다룬다.

예(4 ㄱ)에서 한국어 연어 '술이 늘다'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酒量增加(주량-늘다)'이며, 명사 '술'이 '酒量'으로 대응하는 데에서 명사 성분을 추가하였다. 예(4 ㄴ)에서 한국어 "목이 마르다"는 중국어 "口干(입-마르다)"와 대응되며 한국어 연어의 '목'은 관련없는 전혀 다른 어휘 '口(입)'으로 대체하는 '비관련어' 유형이다.

연어 구성 성분 중에서 용언이 일치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5)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굽이 <u>낮다</u> 가격이 <u>낮다</u>	跟儿矮[굽-낮다] 价格低[가격-낮다]	결합차이-일대다
ㄴ.	키가 <u>크다</u> 산이 <u>높다</u>	个子高[키-높다] 山高[산-높다]	결합차이-다대일
ㄷ.	바람이 <u>약하다</u>	风小[바람-작다]	비관련어
ㄹ.	그림이 <u>걸리다</u>	画挂着[그림-걸다-보어]	관련어-성분추가

예(5 ㄱ)에서 볼 수 있듯이, 용언 '낮다'가 명사와 결합할 때에는 중국어에서 다른 대응 양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굽이 낮다"에서 '矮', "가격이 낮다"에서 '低'로 대응하는 것은 같은 한국어 어휘가 여러 가지 중국어 어휘로 대응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결합차이의 '일대다' 유형에 속한다. 예(5 ㄴ)의 "키가 크다"는 중국어 "个子高[키-높다]"와 대응되며 중국어의 '高'는 '크다'와 대응될 뿐만 아니라 연어 "산이 높다"에서 기본의미인 '높다'와 대응된다. 즉 두 개 이상의 한국어 어휘가 같은 중국어 어휘와 대응되는 '다대일' 유형이다. 예(5 ㄷ)은 '약하다(弱)'가 '小(작다)'와 대응되며 한국어 용언이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어 용언과 대응되는 '비관련어' 유형이다. 예(5 ㄹ)은 '걸리다'가 중국어로 대응할 때 동사 '挂(걸리다)'가 보어'着'와 결합하여 '성분추가' 유형에 속한다.

c. 불일치

불일치는 한국어 연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통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시 품사차이, 결합관계 차이, 연어식 대응 부재 3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6)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밥이 <u>타</u> 다	饭糊	품사차이
ㄴ.	고향이 <u>그립</u> 다	想念故乡	주술-술빈구
ㄷ.	기억이 <u>나</u> 다	记起	주술-술보구
ㄹ.	알기 <u>어</u> 렵다	难懂	주술-상황어중심어구
ㅁ.	겁이 <u>나</u> 다	害怕	주술-어휘
ㅂ.	소식이 <u>궁금</u> 하다	想知道消息	주술-의역구
ㅅ.	마음이 <u>고</u> 맙다	感谢...心意	주술-문형
ㅇ.	농사가 <u>잘</u> 되다	收成好	다른 표현으로 대체

예(6 ㄱ)은 한국어 연어 구성 성분의 품사가 대응된 중국어 표현의 품사와 일치하지 않은 유형이다. 한국어 "밥이 타다"는 '명사+동사'의 구조이지만 "饭糊"는 '명사-형용사'의 구조이다. 예(6 ㄴ~ㄹ)은 결합관계에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이다. 예(6 ㄴ)은 주술관계 연어인 "고향이 그립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인 '想念故乡[그립다-고향]'는 술빈구이다. 그 외에도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술보구, 상황어중심어구와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예(6 ㅁ)은 한국어 연어가 중국어 어휘와 대응되는 유형이며 주술관계 연어 "겁이 나다"는 중국어 어휘 '害怕'와 대응된다. 예(6 ㅂ)은 주술관계 연어가 중국어 의역구와 대응되는 유형이며 "소식이 궁금하다"가 "想知道消息[-고 싶다+알다+소식을]"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가 중국어 문형과 대응되는 유형은 예(6 ㅅ)처럼 "感谢...心意 [고맙다!...(누구)+ 마음]" 중에 문장 성분을 보완해야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예(6 ㅇ)은 한국어 연어 "농사가 잘되다"에 해당하는 의미를 중국어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收成好[수확-좋다]"로 대체되는 유형이다.

4.2 목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 분석

목술관계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초급 단계 목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

완전 일치	기본의미 대응일치		543	778 (48.9%)
	파생의미 대응일치		235	
부분	제언불일치	관련어	1 5	516

일치		비관련어	4	(0.3%)	(32.5%)
	용언불일치	결합차이	417	511 (32.2%)	
		비관련어	65		
		관련어	29		
불일치	결합관계 차이	목술-주서술어구	17	63 (4.0%)	295 (18.6%)
		목술-술보구	10		
		목술-상황어중심어구	7		
		목술-연동문	29		
	언어식 대응부재	목술-어휘	73	223 (14.0%)	
		목술-구	125		
		목술-문형	24		
		다른 표현으로 대체	1		
	중국어에 없는 표현		9(0.6%)		
	합계			1,589(100%)	

위 <표 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급 단계 목술관계 연어 중에 48.9%의 연어는 중국어 대응표현과 통사적, 의미적으로 대응이 일치한다. 통사 대응이 일치하지만 구성성분의 형태·의미 차이로 부분 대응에 속하는 연어는 32.5%를 차지한다. 통사 대응이 일치하지 않은 연어 중에는 언어식 대응이 부재한 연어가 대부분이다.

a. 완전 일치

중국어 대역표현과 통사 대응이 일치하며 구성 성분의 형태·의미의 대응이 일치하는 한국어 연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7)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글자를 <u>쓰다</u>	写字	기본의미 대응 일치
ㄴ.	소설을 <u>쓰다</u>	写小说	파생의미 대응 일치

예(7 ㄱ)에서 '쓰다'는 기본의미로 쓰이며 중국어 대응 표현의 '写'와 일치한다. 예(7 ㄴ)에서 '쓰다'는 "원시, 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 따위를 작성하거나 일정한 양식을 갖춘 글을 쓰는 작업을 하다"의 파생의미에 해당하며, 이 파생의미도 중국어 '写'와 대응된다.

b. 부분 일치

중국어 표현과 통사 대응이 일치하나 구성 성분의 형태·의미 대응이 일치하지 않은 연어는 체언 불일치와 용언 불일치로 나뉜다. 체언이 일치하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

(8)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머리를 믿다	相信自己[믿다- <u>자신</u>]	비관련어
ㄴ.	입을 빌리다	借他人之口[빌리다-타인의 입]	관련어-성분추가

예(8 ㄱ)은 '머리'는 중국어 '头'와 대응이 되지만 한국어 연어 "머리를 믿다"에서 '머리'는 중국어 '自己(자신)'와 대응되기 때문에 '비관련어' 대응 유형으로 칭한다. 예(8 ㄴ)은 입을 중국어 '口'와 대응이 되지만, 한국어 연어 '입을 빌리다'에서 '입'은 '他人之口(타인의 입)'과 대응된다. 여기서 체언 '입'을 수식하는 성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관련어-성분추가' 분류로 칭한다.

(9)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불을 끄다 산불을 끄다	关灯[끄다-불] 灭山火[끄다-산불]	결합차이 - 일대다
ㄴ	불을 켜다 문을 열다	开灯[켜다-불] 开门[열다-문]	결합차이 - 다대일
ㄷ	숨씨를 가지다	有手艺[있다-숨씨]	비관련어
ㄹ	산을 내려오다	下山来[내리다-산-보어]	관련어-성분추가

예(9)은 용언의 대응이 일치하지 않은 예들이다. (9 ㄱ)은 한국어 어휘 '끄다'는 다른 연어에서 다양한 중국어 어휘와 대응되는 '일대다' 유형이다. (9 ㄴ)은 한국어 용언 '켜다'와 '열다'는 중국어 어휘 '开'와 대응이 되는 '다대일' 유형이다. (9 ㄷ)은 동사 '가지다'는 한국어 연어 '숨씨를 가지다'에서 '有(있다)'로 대응되는 '비관련어' 유형이다. (9 ㄹ)은 동사가 일치하되 문법 성분이 추가되는 유형이다.

c. 불일치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역표현의 동사 대응이 일치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결합관계 차이, 연어식 대응 부재, 중국어에 없는 표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 결합관계 차이로 인해 대응이 일치하지 않는 연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0)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高中毕业 [고등학교-졸업하다]	목적-주서술어구
ㄴ	선택을 잘못하다	选错 [선택하다-틀리다]	목적-술보구
ㄷ	출근을 서두르다	急着上班 [서두르다-출근하다]	목적-상황어중심어구
ㄹ	기쁨을 느끼다	感到高兴 [느끼다-기쁘다]	목적-연동문

예(10)은 한국어 목적관계 연어와 중국어 대역표현과 결합차이가 나타난 예들이다. (10 ㄱ)은 목적관계 연어인 '고등학교를 졸업하다'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高中毕业[고등학교-졸업하다]'은 주서술어구이다. 그 외에도 한국어 목적관계 연어는 중국어 술보구, 상황어중심어구, 연동문과 대응될 수 있다.

(11)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출석을 부르다	点名[출석부르다]	목적-어휘
ㄴ.	아이를 귀여워하다	觉得孩子可爱 [느끼다-아이-귀엽다]	목적-구
ㄷ.	심부름을 시키다	让...跑腿 [시키다-N을-심부름]	목적-문형
ㄹ.	손을 빌리다	请求帮助[청하다-도움]	다른 표현으로 대체

예(11)은 목적관계 연어와 중국어 대역표현은 연어식 대응이 부재한 예들이다. 목적관계 연어 "출석을 부르다"는 중국어 '点名' 한 어휘로 대응된다. 그 외에 한국어 목적관계 연어는 중국어 술보구, 상황어중심어구, 또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12)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폐백을 드리다	/	중국어에 대응 표현 부재
ㄴ	댕기를 매다	/	중국어에 대응 표현 부재
ㄷ	버선을 신다	/	중국어에 대응 표현 부재

예문(12)은 중국어에서 대응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연어들이다. 이러한 연어는 주로 "댕기를 매다", "폐백을 드리다"처럼 한국의 전통 문화가 담겨져 있는 연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댕기', '폐백'과 같은 문화 어휘는 중국어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우며 설령 중국어로 대역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문화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

4.3 대조분석의 함의

이상 대조분석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 단계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을 살펴본 결과, 중국어 대역표현과의 통사 일치율에 있어서 목술관계 연어보다 주술관계 연어의 일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술관계 연어는 서술어에 따라 중국어 대역표현의 통사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13 ㄱ, ㄴ)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대역표현의 통사와 일치하지만, 예(13 ㄷ)은 한국어 연어의 통사가 자동사인 반면 중국어 대응 통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술빈구(목술관계)와 대응된다. 한국어 동사 '자라다' 외에 '생기다', '내리다' 등이 있다.

(13)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구분
ㄱ	기리가 <u>가깝다</u> (형용사)	距離近(N+A)	대응 일치
ㄴ	아이가 <u>넘어지다</u> (자동사)	孩子摔倒(N+V)	대응 일치
ㄷ	키가 <u>자라다</u> (자동사)	长个儿(V+N)	대응불일치(주술-술빈)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구조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주로 형용사와 자동사가 용언으로 쓰일 때 주시술어구(주술관계 연어)를 구성하며 용언이 타동사일 경우에 술빈구(목술관계 연어)가 구성된

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언어 습관에 따라 주술관계 연어를 목술관계 연어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의 용언이 기능동사, 심리형용사, 피동사일 때는 결합관계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통사 대응
ㄱ	수염이 나다	长胡子[나다-수염]	주술-술빈
ㄴ	이가 나다	长牙[나다-이]	주술-술빈
ㄷ	집이 나다	害怕(겁나다)	주술-어휘
ㄹ	노력이 들다	努力[노력하다]	주술-어휘

예(14)에서 보어주듯이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의 용언이 기능동사일 때 중국어 대응표현과의 통사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예(14 ㄱ~ㄴ)은 기능동사 '나다'로 구성된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술빈구와 대응된다. 학습자가 중국어 대응표현의 통사관계를 한국어에 적용해서 "*수염을 나다", "*이를 나다"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14 ㄷ~ㄹ)은 체언이 술어명사, 용언이 기능동사일 때 용언이 생략되어 중국어 어휘와 대응되는 것을 보여준다.

주술관계 연어의 용언이 심리형용사일 경우에 중국어 대응표현의 통사가 달라진 예는 다음과 같다.

(15)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통사 대응
ㄱ	집이 그림다	想家[그리워하다-집]	주술-술빈구
ㄴ	공부가 싫다	讨厌学习[싫어하다-공부]	주술-술빈구

예(15)에서 심리형용사 '그림다'와 '싫다'는 중국어 타동사와 대응되며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술빈구와 대응된다. 이러한 통사 차이로 인해 학습자는 중국어 대응표현의 통사관계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집을 그림다", "공부를 싫다"와 같은 조사의 오류를 범할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 초급 단계에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고맙다, 궁금하다, 귀찮다, 무섭다, 부럽다, 싫다" 등 심리형용사를 가르칠 때 연어를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용언에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는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로 대응할 때 통사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16)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통사대응
ㄱ	통로가 막히다	通道被堵[통로-전치사-막다]	주술-피동구
ㄴ	재료가 사용되다	材料被使用[재료-전치사-사용하다]	주술-피동구

예(16)에서 보여주듯이 '막히다', '사용되다'와 같이 피동 의미를 포함하는 용언으로 구성된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로 대응할 때 피동을 나타내는 중국어 전치사 '被'를 추가하기 때문에 연어식 대응이 부재하여 구와 대응된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한국어 피동표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언어를 활용한 피동표현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역표현의 통사 대응이 일치하지만 구성성분인 체인과 용언의 형태·의미의 차이로 인해 대응이 일치하지 않은 연어의 비율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 학습자에게 어휘대체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个子高(키가 크다)"를 표현할 때, 중국어 형용사 '高'의 기본의미가 한국어 형용사 '높다'와 대응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 키가 높다'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역 표현의 부분일치로 인한 다음과 같은 초급 단계의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

(17)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오류 예측
ㄱ.	힘이 강하다	力气大	* 힘이 크다
ㄴ.	바람이 세다	风大	* 바람이 크다
ㄷ.	강아지가 울다	狗叫	* 강아지가 부르다

셋째, 대응 부재 유형은 두 가지 있는데 의역해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유형 및 중국어로 해석할 수 없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어는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버선을 신다"와 같은 한국 문화가 담겨져 있는 연어는 한국 문화와 연계해서 교육할 가치가 있다. 학습자에게 문화 어휘 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우며 이러한 문화 어휘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한국 문화 교육과 결합해서 교육하는 것은 어휘 학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응표현의 높임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	한국어 연어	중국어 표현
1.	선물을 드리다	给礼物[주다/드리다-선물]
1.	낮잠을 주무시다	睡午觉[자다/주무시다-낮잠]

예(18)와 같이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역표현은 통사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성성분의 의미까지 일치한다. 그러나 '드리다'와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이 발달된 한국어와는 달리 중국어에는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높임에 익숙하지 않다. 주체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선물을 주다"와 "낮잠을 자다"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지 않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연어를 활용한 높임법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에서 제시된 초급 한국어 연어 목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주술관계와 목술관계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을 통사적, 형태·의미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어 목록은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목록을 추출했으므로, 연구결과를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다. 둘째, 한중 병렬말 뭉치를 활용하고 대응 원칙을 세워 중국어 대응표현을 선정함으로써 대응 표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셋째, 대응유형에 따른 일치율 비교를 통해 대응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특징 부류의 대응 불일치 원인을 규명했다. 넷째, 주술관계 연어 대응 양상 분석을 통해 용언이 기능동사, 심리형용사, 피동사일 때 통사적인 변화를 밝혔으며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한국어연어와 중국어 내역표현의 높임 차이까지 살펴보았다. 대조분석의 함의에서 제시 하듯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어를 교육할 때에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유형을 주의시켜 교육한다면 해당 유형에서 비롯되는 연어 오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기초

어휘 교육 자료로 삼아, 교재와 사전 편찬 및 교수·학습 방안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 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강현화(1998), [체언+용언]플의 언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 연구』 제 8 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91-224.
- 강현화(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프레지올러지에 관한 연구(2)- 한중 대조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1.
- 강현화(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언어의 유형에 대한 고찰", 『응용언어학』 제 3 집, 한국응용언어학회, 197-217.
- 강현화·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강현화 외(2012),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 국립국어원.
- 기단봉(2009),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언어 대조 연구-복술관계 언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3),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권별 어휘 오류의 통계적 분석",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52.
- 김진해(1999), "언어(collocation)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 4 집, 한국어 의미학회, 239-279.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17-250.
- 범기혜(2010),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한국어 언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아남(2013), "한국어 언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의정·한송화(2011), "한국어학당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언어 사실과 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53-189.
- 왕효휘(2012), "한국어 언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혜(2006), "심리형용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사전 기술 연구-언어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大東文化研究』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11-444.

- 임은정(2015), "한국어 조사 {를}의 중국어 대응양상 연구 - 한중 중한 신문 병렬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2002),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제 28 회 국어학회, 279-320.
- 임근석(2006), "한국어 언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송화·강현화(2004),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318.
- 한송화(2015), "한국어 교육용 어휘 내용 개발 연구-4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1 차 추계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45-151.
- Firth. J. R(1957), Modes of meaning,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北京大学中文系 편, 김애영, 김현칠, 소은희, 심소희 역(2007), 『(현대중국어의 이해)现代汉语』, 차이나하우스.
- 范晓 저, 박미애 역(2007), 『短语句』, 차이나하우스.

<참고 사전>

- 강식진 등(1998), 『진명한중사전』, 진명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하수 외(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인.
- 박문자·왕단(2015), 『한중언어사전』, 박이정.
- 刘沛森(2004), 『韩汉大词典』, 商务印书馆.

投稿截止日: 2016年 9月15日
審査刊登日: 2016年11月15日